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3호 [루게 제25031호] 주제 104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
를 관람하시었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전용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 인민군장
병들,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체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게 된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청년
들을 기증한 전우로, 최후승
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부대로 불려주시고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
려가도록 따듯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심으로
하여 뜨겁게 끓어번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관
람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이
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정력적인 형태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
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제단
《청춘의 이쁨》,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혼성2중
창 《우등불》, 어은금독주와 방창 《젊음
은 금행렬차》, 남성기타5명창 《우리
앞날 밝다》, 국이악기 《500만의
신념》,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
으로》, 선동과 독연 《청년혁명
학교》, 가무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 혼성중창이야기 《체육
열풍종다》, 선동극 《천백배로 복수하리
라》,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여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과 노래 《해안포
병의 노래》, 시이야기 《위대한 태양의
품》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
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청년강
국건설의 만년기쁨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과 이 땅위에 청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
품모를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대
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
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
이라는 확신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
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열혈청춘들의 전투적기백과 랑만을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70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
세운 력사라는것을 보여준
공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 자신께서 청년
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
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
연, 지금까지 본 예술선전대공
연중에서 최고의 공연이라고
거들거들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언제나 승리의 한
길만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우
리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
관을 이겨내고 혁명의 진취물
과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
왔기때문이라고 감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선봉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
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상에
도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최
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500만 청
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소합창 《조선청년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태양의 품속

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 억세게 자라고있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을 파시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러져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
예술선전대원들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하고있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우리 당의 마이크, 나팔수와 같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청년들의 사상교양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제들을 취급한 기쁨진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할데 대한 과업들과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루적인 예술활동을 맹렬히 벌임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모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당중앙과 사상과 습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을 맞아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9일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들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양태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선군조선이 무궁번영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 들어선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참가 인사들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흥도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 숭유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었다.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경축 제1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떠세우시였으며 한없이 고매한 덕망과 정력적인 령도로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들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과 나이제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유화동지의 가족과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재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재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었다.

본사기자

